

이 력 서



이름	이주민	영문	JOOMIN LEE	한문	李柱玟
주민번호	920225 - 2*****			나이	29
휴대폰	010 - 9034 - 3058				
E-mail	joomin15@gmail.com				
주소	하남시 미사강변서로65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교명 및 전공	학점	구분
2016. 03 ~ 2019. 02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65 / 4.5	졸업
2011. 03 ~ 2013. 02	배화 여자 대학	3.37 / 4.5	졸업

수행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개발기간	개발인원	개발환경
소사 출석부	2020.07 ~ 2020.08 : 4주	1명	JAVA SE, php, Android Studio, 호스팅 서버 활용, mySQL DB
프로젝트명	개발기간	개발인원	개발환경
주간 농사정보	2020.08 : 1주 미만	1명	Kotlin, Android Studio
프로젝트명	개발기간	개발인원	개발환경
마포FM 웹퍼블리싱	2020.08 ~ 2020.09 : 3주	5명	HTML 5, CSS 3, JavaScript, VisualStudio Code

교육/연수

기관	과정명	교육내용	기간
(주)미래능력개발교육원	안드로이드&하이브리드 앱개발자양성	C언어, JAVA, SQL, Kotlin, PHP, HTML, CSS, Javascript, firebase	2020.03~2020.10 (6개월)

보유기술

Front-End	Back-End	DBMS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ML5 CSS Javascript React N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va P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ySQL SQLite Fire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GitHub Microsoft Excel 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어학			
언어	시험	점수	기관
영어	토익스피킹	IH	YBM시사
영어	IELTS	6.5	영국문화원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면허증	등급	발행처
2020.06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 년 10 월 7 일

성 명 : 이주민 (인)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결심했으면 실천은 빠르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골라야해서 선택을 하기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에는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빠르게 행동에 옮기곤 했습니다.

2013년, 대학 졸업 후 취업에 뛰어들기 전에 저는 한 번쯤은 해외로 나아가서 영어와 일을 배우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워킹홀리데이라는 해외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연고 없는 곳에 혼자 어떻게 갈 생각이냐며 저를 만류했고, 저 또한 인터넷으로 알아본 게 전부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어느 날 워킹홀리데이 박람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무작정 코엑스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에서 입장권 추첨 이벤트 1등에 당첨되어 호주에서 한 달 여학원 무료 체험권과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한 달 뒤, 2013년 4월 호주의 멜버른에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마음을 먹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격과 강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제 성격의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가족인 본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 웃어른들과 나이 어린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어려움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또한,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할 일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맡곤 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제가 나서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탓에 갈등의 중간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을 하는 편이라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갖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사항 및 사회활동

[기획과 개발은 이상과 현실]

지난 7월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친구가 피아노 학원의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학생 관리를 위한 기존 출석부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불만을 듣고 '소사출석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기획서를 작성할 시기에는 기존 출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실행시켜보고, 친구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다양한 기능과 멋진 디자인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을 시작하자마자 화면구성의 디테일과 전체적인 디자인 흐름, 그리고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석여부를 확인하려던 처음 기획은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에 무산되었고, 학생들의 등원시에 입력을 받아야하는 보조 단말기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저장해야할 DB가 필요했고 SQL과 psp까지 직접 작성해야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도는 사소한 에러에서 자꾸 멈추게 되었고, 마침내 쫓기는 시간 속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사 프로젝트'는 상용화 되진 못했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개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획서는 개발의 방향과 목표지점을 가리킬 뿐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 기간을 선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포부

[일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

저는 호주에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용돈벌이를 위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상급자, 혹은 저보다 경력자인 동료가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어진 일만 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는 속도도 느리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 타박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점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노하우였습니다. 일은 누가 시켜서 부분적으로 처리할 때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미리 해두거나 혹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을 채워두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눈앞에 닥친 업무를 기존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다양한 시도를 해 보며 나름대로의 업무 처리 방식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동료들에게는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IT업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존 방식을 지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무엇을 미리 처리해야하는지 찾아내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